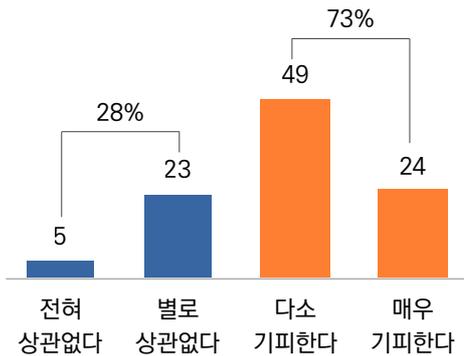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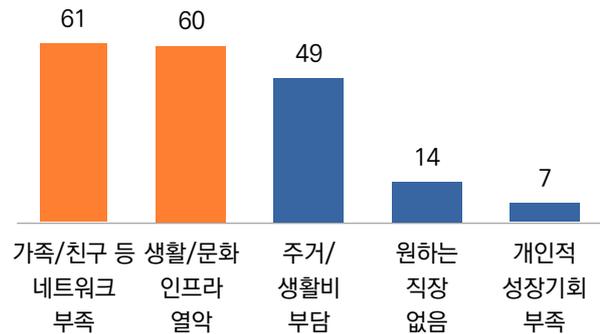
수도권 청년 구직자 10명 중 7명, “지방근무 싫다!”

- ▶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‘지방 근무 인식’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(73%)은 ‘지방근무를 기피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‘가족·친구 등 네트워크 부족’(61%)과 ‘생활·문화 인프라 열악’(60%)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, 이어 ‘주거·생활비 부담’, ‘원하는 직장 없음’ 등의 순이었다.

[그림] ‘지방근무 하는 것’에 대해...
(수도권 거주 청년, %)



[그림] ‘지방근무’를 기피하는 이유
(복수응답, 상위 5개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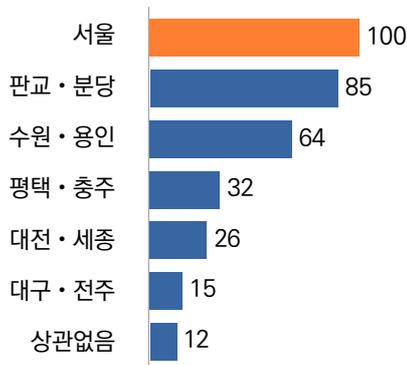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대한상공회의소, 지방 근무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 조사, 2022.06.07(국내 20~34세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 301명, 전화/온라인 조사 병행, 2022.05.17.~05.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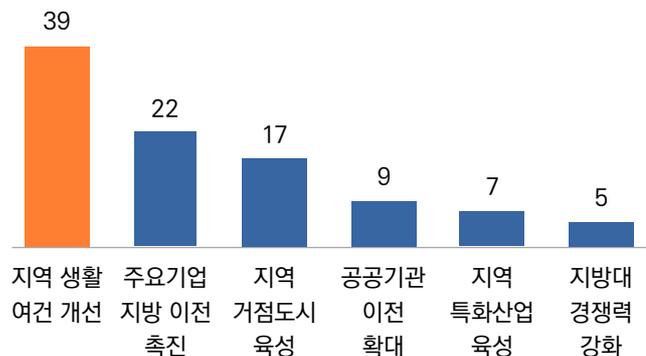
◎ 수도권 청년 구직자 85%, 대전/세종 밑으로는 안 가고 싶다!

- ▶ 서울에서 어느 정도 먼 지역까지 근무 의향이 있는지 최대 허용 지역을 물은 결과, 판교·분당 85%, 수원·용인은 64%인 반면, 평택·충주는 32%까지 낮아졌다.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히 평택/충주 지역권 아래부터 근무 의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▶ 청년들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‘지역 생활 여건 개선’(39%)을 가장 많이 꼽았다. 다음으로 ‘주요기업 지방이전 촉진’(22%), ‘지역 거점도시 육성’(17%)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. 청년층의 지방 이탈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육성 등 ‘자족 가능한 환경 조성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다.

[그림] 수도권 구직 청년의 지역별 근무 의향률
(중복응답, %)



[그림] 청년 구직자가 바라는 새정부의 최우선 지역 정책과제
(상위 6위, %)



*자료 출처: 대한상공회의소, 지방 근무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 조사, 2022.06.07(국내 20~34세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 301명, 전화/온라인 조사 병행, 2022.05.17.~05.20)